

# [제주잠녀] 87. <2부>발로 딛는 잠녀들의 삶 (58)남원읍 위미1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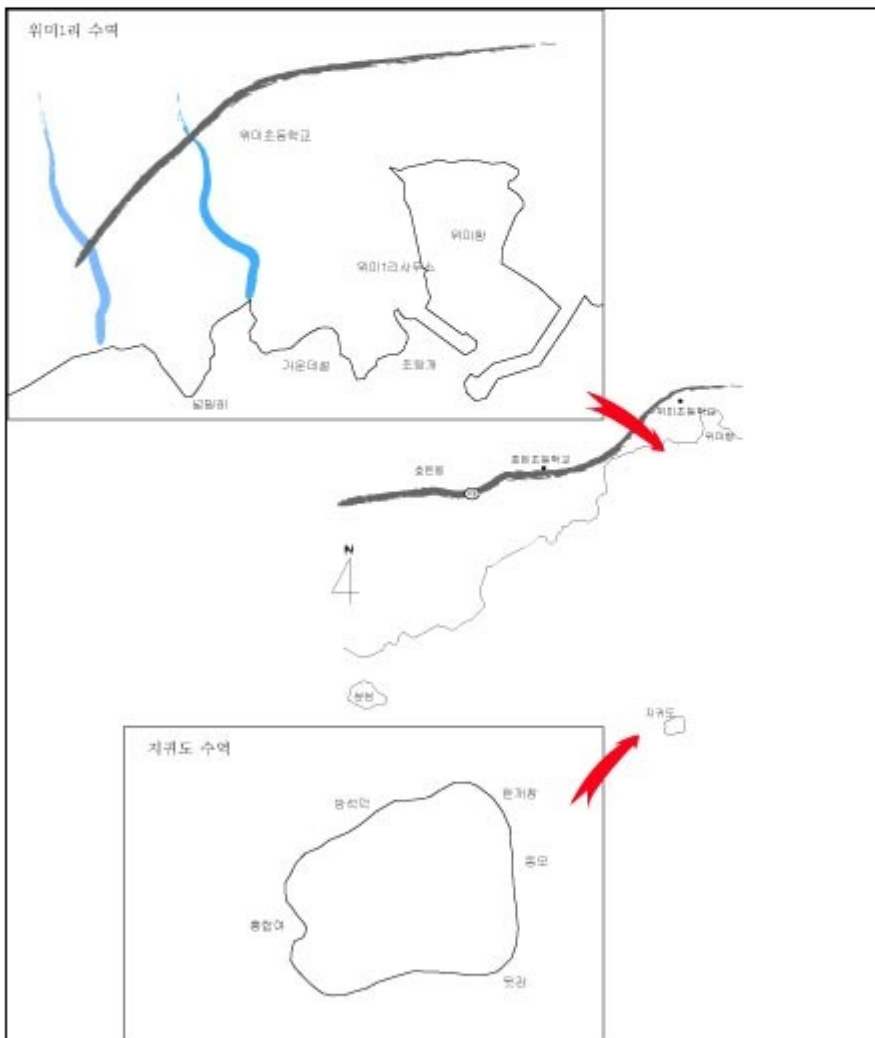
실망만 안겨준 어촌체험마을

등록 : 2007년 09월 30일 (일) 15:29:54  
 최종수정 : 2007년 09월 30일 (일) 15:29:54

고미기자 ✉ popmee@hanmail.net

가을 바다에는 기다림의 기쁨이 있다. 단 몇분이라도 머물러 가슴을 열어 보이면 이내 속내를 소리없이 모두 털어놓을 듯 짙은 빛을 한 바다는 그러나 지나치게 말수가 줄었다.

금채기가 지났지만 '10월 입찰도 힘들다'는 풍문은 소라 채취를 위해 바다로 나가려는 잠녀들의 발목을 잡는다. 제주섬을 뒤흔든 '해군기지'역풍으로 4월까지 제대로 바다에 가보지도 못한 잠녀들에게 태풍이후 가깝게 보이는 '지귀섬'은 안타까움이다.



**△몸 따로 마음 따로 어촌 체험마을=남원읍 위미1리**는 해양수산부 지정 '어촌체험마을'이다. 마을 입구부터 잘 정비된 도로며 시원스레 보이는 공원, 그 배경이 된 고운 바다 풍경이 눈을 사로잡는다.

하지만 이곳 바다 사람들은 '이것이 전부'라고 이내 손사래를 친다.

어촌체험 마을 지정으로 한껏 부풀었던 기대감은 이제 사라지고 없다. 관광객을 유인할만한 관광지가 주변에 한곳도 없는데다 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행정 당국과 어촌계의 생각 차는 쉽게 좁혀지지 않았다고 했다.

가두리 양식장을 만들어 낚시 체험 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해보려고도 하고 국내 대

기업에서 요트 선착장을 만들어 관련 관광객을 유인하려는 시도도 해봤지만 '허가'가 나오지 않았다.

그나마 자귀도 유어장에 100명 남짓한 스킨스쿠버 관광객을 실어 나른 것이 올 여름 어촌체험마을의 성적표다.

어촌체험마을 지정으로 특별하게 달라진 것은 없다. 사고가 잦았던 진입로를 확장해 '접근성'을 높인 것이 전부인 셈이다.

마을과 바다가 인접해 있어 바닷잡이 체험 어장이 잘 운영될 듯도 한데 이 것 역시 유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관광지 등)가 없어 그저 지나다 들르는 사람들로 명맥만 유지했다.

한 어촌계 관계자는 "어촌체험마을을 어촌계에서 알아서 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라며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제시한다거나 주변 관광지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지정했다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지귀섬'으로**=위미1리 바다는 아직 '공사중'이다. 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 연결 작업이 아직 진행중이어서 가을 바람에 숨을 고르던 바다가 포크레인 등 중장비 소리에 깜짝 깜짝 놀란다.

위미1리 잠녀는 56명. 이중 45명은 고무뿔을 입고 물질을 한다. 지귀섬로 물질을 나갔다는 말이 들린다.

지귀섬 오분자기 작업은 이른바 '잘하는' 잠녀들이 한다.

재작년까지 꽤 잡혔던 소라가 지난해부터는 눈에 띄게 줄었다. 4만6880kg의 TAC물량을 배정받았지만 3만3000kg를 겨우 채웠다. 올해는 이마저도 어려울 거란다.

해군기지 바람에 4월까지 제대로 작업을 하지 못하는데다 수출 시장 등의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입찰이 미뤄지면서 작업 속도 역시 더뎠다.

재작년만해도 2만마리나 뿌렸던 전복 종패 역시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아직 손도 못대고 있다. 지귀섬 양식장에서 뿌려둔 전복 종패를 1년에 한차례 잡지만 잘해야 10kg정도를 망태에 넣을 정도다.

과수겸업이 많아 감귤철이 되면 물질 역시 뜸해진다.

지귀섬 툯 작업은 합숙에 이은 강행군으로 '툯조합원'으로 불리는 일반 조합원들도 참여할 수 있다. 지귀섬에 천막집을 짓고 15일을 꼬박 툯작업에 투자한다. 올해 툯작업으로 한사람 당 75만원을 손에 쥐었다. 한창 때는 kg당 6000원까지 받았던 툯이 올해는 2710원에 입찰됐다고 하니 그 차이가 크다.

김계정 위미1리 잠수회장(58)은 "이 상태로라면 툯 작업은 할 사람이 없어서 못할 정도"라며 "갈수록 작업 환경은 나빠지고 잠녀들도 나이가 들어 물살이 센 섬 작업은 하지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김 잠수회장은 또 "자치단체에서 소라 수출이 안되서 생긴 손해를 보전 해준다고 하더니 아직까지 10원 한 장 받지 못했다"며 "사정이 이런데 누군들 힘든 물질 작업을 하겠냐"고 혀를 찼다.

태풍이 지난 바다는 유난히 고왔다. 눈을 돌리는 곳 모두가 자연이 만들어낸 한쪽의 풍경화였지만 그 속내는 아픔이자 외로움이다.